

“불굴의 도전·끊임없는 혁신...비상의 토대 만들 것”

호남대학교 개교 48주년 기념식

박상건 이사장 “AI 시대 부응하는 융복합 인재 양성” 미래 비전 공유...30년 장기근속자·우수교직원 표창

학교법인 성인학원 호남대학교는 15일 오전 10시 교내 문화체육관에서 개교 48주년 기념식을 열고 AI융합교육 강화와 지역 인재 양성 등 미래 대학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상건 이사장과 박상철 총장, 김장승 총동창회장, 법인이사 회 관계자, 교직원, 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해 개교 48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학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박상건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48주

년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세월의 누적이나 설립자의 교육에 대한 강인한 열정과 뜨거운 헌신, 그리고 수많은 동문과 구성원들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위대한 유산”이라며 “불굴의 도전정신과 끊임없는 혁신으로 다음 세대가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토대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박상철 총장은 식사에서 “개교 48주년을 맞은 오늘에 호남대학교가 새로운 미래를 향한 비전을 다짐하는 뜻깊은 전

환절”이라며 “변화의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대대적인 학사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지역 대학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AI 시대에 부응하는 융복합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기계자동차공학과 강은주 교수가 30년 장기근속상을 수상했으며,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한신 교수와 학생처 학생지원팀 김동희 과장이 우수 교직원상을 받았다.

1978년 육영보국의 설립이념으로 창학한 호남대학교는 지난 반세기 동안 시대 변화에 발맞춘 혁신 교육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해 왔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 대한민국’을 선도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편과 AI 역량 강화에 힘쓰며 전교생 AI융

합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AI 기반 자·산·학·연 협력과 AI 대중화 교육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호남대학교는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관하는 ‘국가서비스대상’에서 2020년부터 6년 연속 ‘대학·AI특성화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국내 대표 AI특성화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2020년 광주시의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성 정책에 발맞춰 자·산·학 협력 생태계 구축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 혁신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광주광역시가 추진한 ‘2025년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선정돼 AI 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수행했으며, 1차년도 자체평가에서 참여 대학 17곳 가운데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인수 기자 jinusu@gwangnam.co.kr



박상건 호남대학교 이사장이 개교 48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호남대학교

광주기독병원, 비뇨기 질환 치료 역량 강화

최신 레이저 장비 ‘TFL’ 도입...수술 정밀도 향상

광주기독병원은 최근 충청·호남권 의료기관 최초로 요로결석 및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위한 최첨단 레이저 장비인 ‘TFL(Thulium Fiber Laser·툴륨 파이버 레이저)’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도입된 TFL은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홀뮴(Holmium) 레이저에 비해 파장이 짧아 눈에 대한 흡수도가 높고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조사돼 수술의 정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TFL 레이저의 핵심 장점은 강한 파쇄력과 높은 안전성이다. 요로결석 치료 시 결석을 모래처럼 미세하게 분쇄해 체외 배출을 원활하게 도우며, 수술 중 결석이 뒤로 밀리지는 현상을 방지해 수술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또한 전립선비대증 수술 시 조직 손상과 출혈을 최소화해 정밀한 레이저 절제



가 가능하다. 특히 지혈 효과가 우수해 고령 환자나 아스피린, 와파린 등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환자도 복용을 중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

광주기독병원은 이번 TFL 도입으로 비뇨기 질환 치료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욱 광주기독병원 병원장(사진)은 “이번 TFL 도입은 지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첨단 의료장비 도입과 의료진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역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보라안과병원, 4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환자 중심 진료체계 등 우수

보라안과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서 주관하는 ‘4주기 의료기관인증’을 획득하며, 광주를 대표하는 안과 병원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환자중심 진료체계, 감염관리, 시설 및 조직 운영 등 의료기관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가 공인 제도다.

보라안과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환자 안전 보장 활동, 진료전달체계와 평가사의 약품관리, 수술 및 마취·진정관리,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 감염관리 등 92개 기준 총 512개 조사 항목에서 고르게 우수한 점수를 받아 인증을 통과했다.

박진우 병원장(사진)은 “3주기에 이어 4주기 인증까지 획득한 것은 전 직원이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전병현 광주 서부경찰서장 취임

“현장 중심 치안 활동에 역량 집중”

전병현 제49대 광주 서부경찰서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청사 2층 치병실에서 전병현 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 서장은 취임사에서 “광주의 중심이자 치안 1번지인 서부경찰서에서 지역 안전을 위해 일하게 돼 큰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사회 발전과 안전을 위한 헌신한 점 박중영 서장과 동료 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나아가야 할 주요 치안 지향점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응답하는 것”이라며 “모든 업무를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치안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작은 목소리



2026. 6. 15(월) 전 서장은 취임사에서 “광주의 중심이자 치안 1번지인 서부경찰서에서 지역 안전을 위해 일하게 돼 큰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사회 발전과 안전을 위한 헌신한 점 박중영 서장과 동료 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나아가야 할 주요 치안 지향점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응답하는 것”이라며 “모든 업무를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치안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전 서장은 광주 출신으로 전남경찰청 과학수사계장과 광주경찰청 청문감사인권계장, 공공안전부 치안지도관, 장성경찰서 서장, 전남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장,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 등을 역임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2026. 6. 11. (목) 15:00 장소: 보성경찰서 2층 소회의실 보성군은 최근 보성경찰서, 유한회사 보광택시와 함께 학대 피해 의심 아동 발생 시 신속한 분리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교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보성군청

보성군, 학대피해의심아동 보호 지원망 구축

보성경찰서·보광택시와 위기 대응 강화

보성군은 최근 보성경찰서, 유한회사 보광택시와 함께 학대 피해 의심 아동 발생 시 신속한 분리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교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후 현장 조사 과정에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과 보성경찰서, 유한회사 보광택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긴급 상황 발생 시 학대피해의심아동의 이동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호조치와 안전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의 신속지원중심형 사업

비율 활용에 추진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의 안전권 보장과 학대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개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20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돼 아동학대 위기기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다양한 예방 사업을 추진해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2026년 한국전력공사 장애인채용선수 인턴 간담회. 6월 12일(금) 14시, 전남체육관 3층 대회의실. 최근 전남도장애인체육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상생 간담회에서 한국전력공사 소속 장애인 체육선수 인턴 30명과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전남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선수 고용 전국 1위

한전 인턴 선수 간담회 개최...“연말 350명 목표”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며 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15일 전남도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현재 도내 장애인 체육선수 306명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취업해 활동하고 있다. 이는 전남 지역 등록 장애인 선수 881명 가운데 약 35%에 해당하는 규모로, 선수 3명 중 1명 이상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전남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2일 도장애인체육회 3층 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 소속 장애인 체육선수 인턴 30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들이 인턴 선수들을 대상으로 근태 관리 기준과 재계약 시 적용되는 평가 기준 등을 설명하며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고용 지원 정책을 펼쳐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됐다.

도장애인체육회는 현재 취업 선수 306명에 대한 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수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업과 선수 간 협력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20개 기업 취업 선수 306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소통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장애인체육회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취업 선수를 350명으로 확대해 취업률을 4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춘섭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안정적인 경제 기반 위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고용 지원 정책을 펼쳐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전KPS, 나주 공산면 4개 경로당 에어컨 후원

한전KPS(사장 김중연)는 최근 나주 공산면 경로당 4개소에 1000만원 상당의 에어컨 4대를 후원하는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펼쳤다.

한전KPS는 ‘지역사회와 함께 희망의 미래를 여는 따뜻한 사회공헌 이행’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작게는 개인부터 크게는 지역 상생 지원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소통 채널(국민행복나눔터)을 운영하고 있다.

오길성 공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한전KPS의 후원으로 관내



4개 경로당에 에어컨을 지원하게 돼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업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광주세관, 개청 46주년 맞아 나눔 실천

관세행정 협조자 등 표창 수여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강태일)은 개청 46주년을 맞아 관세행정협조자와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하고, 광주 지역 사회복합시설 4곳을 방문해 나눔 기부를 실천했다고 15일 밝혔다.

관세행정 협조자로는 철저한 감사업무 수행으로 관세질서 확립에 기여한 최해연 주무관, 우수공무원으로는 엄정한 관세조사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공정 무역 확립에 기여한 김지연 주무관이 선정됐다.

또 광주세관은 아동보호 시설인 ‘광주 나자렛집’과 소년가장 그룹을 ‘길상원’, ‘나래울’, ‘늘빛’을 찾아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직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위



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광주세관 직원들은 매일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모아 사회복지시설과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사랑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강태일 세관장은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